

# 「策問」에 나타난 正祖의 學問觀

김 현 옥 \*

## <目次>

- |            |              |
|------------|--------------|
| I. 序言      | III. 正祖의 學問觀 |
| II. 策問의 特徵 | IV. 結語       |

## <국문 초록>

조선 왕조를 통틀어 학문적 군주를 손꼽으라 하면 거의 예외 없이 世宗과 正祖를 떠올릴 것이다. 그 만큼 학문적 군주로 이름이 높았던 정조는 君師를 자처하였고, 抄啓文臣制度를 통해 젊은 관료들을 교육할 만큼 학문적 자신감 또한 있었던 군주였다.

따라서 정조의 學問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다각도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그의 학문관을 연구함에 있어 策問이라는 하나의 형식을 통해 바라보고자 하였다.

그의 學問觀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宋學에 근거한 漢學受容 樣相이다. 정조는 당시의 학문을 ‘衛正關邪’라는 관점에서 正學과 邪學(俗學)으로 나누어 보호하고 배척하였다. 그가 말하는 정학은 朱子學을 근간으로 하는 經學을 말하는 것이고, 속학은 西學과 明末清初의 고증학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조는 학자군주답게 西學과 考證學에 대하여도 관심을 갖고 그 나름의 비평을 가하였으며, 漢學의 성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용하는 입장이었다.

\* 대전관저고등학교 교사 / hokongju77@hanmail.net

둘째는 經學의 內實化에 보이는 實學 追究의 精神이다. 정조는 당시의 학문 풍토가 心性論에만 매달려 經學에 어둡다고 비판하면서, 경학을 근거로 한 실질적 학문을 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경학을 배제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사물에 대한 식견도 체득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경전의 가르침을 터득하면 城이나 수레의 제도까지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당시 관심 밖의 학문이었던 지리와 천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처럼 정조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학문은 학문이 아니라고 여길 만큼 실용성을 강조하였다.

이상에서 正祖의 學問觀을 그의 策問을 통해 살펴보았다. 책문 속에는 이처럼 정조가 지향하고 조정에 참여하는 관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던 그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策問은 그의 학문적 성향을 살펴볼 수 있는 훌륭한 근거자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제어】 正祖, 策問, 朱子學, 經學, 實學

## I. 序言

조선 왕조를 통틀어 학문적 군주를 손꼽으라 하면 거의 예외 없이 世宗과 正祖를 떠올릴 것이다. 그 만큼 학문적 군주로 이름이 높았던 정조는 君師를 자처하였고, 抄啓文臣制度를 통해 젊은 관료들을 교육할 만큼 학문적 자신감 또한 있었던 군주였다.

따라서 정조의 學問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다각도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그 대표적인 예로, 鄭玉子는 그의 논문<sup>1)</sup>에서 정조의 學風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그의 학문관을 언급하였고, 한형조<sup>2)</sup>는 朱子學의 批判的復古라는 측면에서 정조의 學問觀을 논하였다. 그리고 김인규<sup>3)</sup>는 정조

1) 鄭玉子, 「正祖의 學藝思想」, 『韓國學報』 4권 2호, 일지사, 1978.

2) 한형조, 「正祖의 學問觀 : 朱子學의 批判的復古」, 『장서각』 3, 한국학중앙연구원, 2000.

3) 김인규, 「弘齋 正祖의 學問觀」, 『溫知論叢』 23, 溫知學會, 2009.

의 상반된 평가의 원인을 그의 학문관에서 찾고 있다. 이 밖에도 정조 학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經學에 대한 연구 성과로는 심경호<sup>4)</sup>의 경학연구방법론에 대한 고찰이 있고, 孫貞先<sup>5)</sup>의 정조의 『日得錄』을 중심으로 본 그의 經學思想 연구가 있으며, 김문식<sup>6)</sup>은 조선후기 經學觀의 변화 속에서 정조의 학문정책과 그 영향을 언급하고 있다.

물론 이 외에도 그의 학문과 사상에 대한 연구는 모두 기록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할 정도로 많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그의 학문관을 연구함에 있어 策問이라는 하나의 형식을 통해 바라보고자 한다.

策問은 漢武帝 때 지방수령들의 추천으로 뽑힌 인재를 임용하려고 대책을 물은 데서 유래한 것으로, 정치나 학문, 사회관습 등 전반에 걸친 현안문제를 科擧에 출제하여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 인재들에게 해결책을 구하거나, 관료들에게 출제하여 그들의 생각을 국가정책에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책문은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인 時務를 제시하는 핵심이 되며, 출제의 주체인 임금의 어떠한 문제로 가장 고심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의 사상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策問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 책문 속에는 정조의 학문관이 어떻게 녹아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II. 策問의 特徵

글의 형식인 論策에 대해 유협은 『문심조룡』에서 “시비를 정확히 판

- 
- 4) 심경호, 「정조의 경학 연구 방법에 대한 규건」, 『泰東古典研究』 第21輯,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5.  
 5) 孫貞先, 「<日得錄>을 중심으로 본 正祖의 經學思想 一考察」, 경성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6) 김문식, 「조선후기 경학관의 변화」, 『朝鮮時代史學報』 29집, 조선시대사학회, 2004.

별하고, 현상을 구명하고, 무형한 것을 추구하고, 단단한 것을 뚫어 통로를 구하며, 깊은 못에 낚시를 드리워 궁극을 끌어내기 위하여 쓰는 글이다.”<sup>7)</sup>라고 하였다. 이러한 論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정이나 관부와 관련되는 공식적인 글에는 ‘表·策·啓·奏·疏’가 있다. 이러한 형식들은 각각 그 소용에 따라 선택되었는데, 그 중에서 策은 물음에 해당하는 策問과 대답에 해당하는 對策으로 나눌 수 있다.<sup>8)</sup>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물음에 해당하는 策問이다. 策問은 그 자체가 하나의 완결된 글로서,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인 時務를 제시하는 핵심이 된다. 따라서 책문을 보면 그 시대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책문은 당대의 碩學들이 출제하기도 하지만 출제자는 임금이라는 형식을 띤다. 따라서 책문 속에는 그 출제의 주체인 임금의 시대를 보는 관점이 가장 잘 녹아 있다.

책문은 크게 두 가지의 특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학문·정치 뿐 아니라 사회관습 전반에 걸친 당시의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묻기 위해 제시된 것으로 대부분의 책문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策問에 대한 見解는 정조의 策問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뒷마루에 임하여 策問 내는 것은 대체로 西漢에서 시작되었는데, 사정을 자문하고 발언을 상고하는 것에 불과하였고 당초부터 체제를 세우고 규정을 정립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董仲舒의 天人 對策과 公孫弘의 經術論과 鼂錯의 刑名學이 비록 그 학술은 동일하지 않으나, 요점은 모두 實際의 體得에 바탕을 두었으므로 事業에 實施할 수 있었다.<sup>9)</sup>

7) 유협(최신호 역), 『문심조룡』, 현암사, 1975.

8) 鄭炳憲, 「羅世纘의 策文과 論述의 傳統」, 『語文論集』 第6輯,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1996.

9) 正祖, 『弘齋全書』 卷49, 「策問」 2, 「策規」, “臨軒發策, 蓋昉西漢, 不過詢事而攷言, 初非立體而定規. 故如董子之天人, 公孫之經術, 鼂令之刑名, 雖其學術不同, 要皆本之實得, 可以措諸事業.”

이 策問은 정조가 1783년 抄啓文臣<sup>10)</sup>의 課講 比較에서 제시한 것으로, 여기서 정조는 처음 책문이 西漢에서 시작된 것은 事情을 諮問하기 위한 것이었다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당시 策問에 답한 董仲舒나 公孫弘, 그리고 鼂錯의 對策이 모두 실효성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 말은 책문을 내는 이유가 실효성이 있는 對策을 얻고자 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또한 1792년 抄啓文臣의 親試<sup>11)</sup> 再試에 제시한 책문에서는 “올해는 바로 式年科를 보이는 해이므로 다시 版籍으로 질문하는 것은 가능한 것을 시험하는 뜻이다.”<sup>12)</sup>라고 말하였는데, 이 또한 策問을 내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sup>13)</sup>

다음으로는 조정에 참여하는 관료들의 공통된 인식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책문은 典據나 引用을 통하여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策問에 제시된 추상적 인식에 대한 공동인식이 논리적으로 진술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책문은 출제자의 사상적 지향이 드러나며, 對策의 내용과 방향이 물음 속에 내재되어 있다. 이는 평가를 지향하기 보다는 출제자의 의도를 널리 확산시키고자 하는 데에 목표가 있는 것이다.<sup>14)</sup>

정조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1789년에 抄啓文臣의 親試에 제시한 책문을 보면 정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내 이를 민망히 여겨 매번 筵臣을 대하면 文體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說을 반복하여 거듭 당부한 것이 간절할 뿐만 아니라, 내 말 듣기를 아득히 하여 效力

- 
- 10) 抄啓文臣 : 조선 후기에 규장각에 특별히 마련된 교육 및 연구과정을 밟던 문신들.  
 11) 親試 : 임금이 몸소 과거장에 나와 시험 성적을 살피고 급제자를 정하던 일. 또는 그 시험.  
 12) 正祖, 『弘齋全書』 卷51, 「策問」 4, 「版籍」, “今歲卽式年, 更問以版籍, 出於試可之意.”  
 13) 金顯玉, 「正祖의 經世思想 研究-策問>을 중심으로」, 공주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p.22. 참조.  
 14) 鄭炳憲, 앞의 논문, pp.123-124. 참조.

이 막연하다. 만약 지지귀는 누추한 문장을 씻어 버리고 모두 純正한 지역으로 돌아가 經術을 내포하고 문장을 밝혀 한 시대의 文體를 이루어서 팔방의 보고 듣는 것을 새롭게 하려면, 그 도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子大夫는 이 策問으로부터 근래의 套式을 탈피하고 옛 規범을 만회하여 나로 하여금 빈말을 한 게 되지 말게 하라.<sup>15)</sup>

여기에서 정조는 文體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며, 과거의 純正한 문체가 세대를 내려오며 따라 변하였다고 말하며, 선비들에게 다시 옛날의 純正한 문체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諮問하고 있다. 그러나 정조가 책문의 마지막에 “나로 하여금 빈말을 한 게 되지 말게 하라.”라고 한 것은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켜 施行할 것이니 따르라는 의도가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1796년 新舊選 抄啓文臣의 親試에 제시한 책문이다.

군주가 하늘의 도리를 도와서 이루는 정치에 있어서 또한 어찌 몸소 솔선하여 멀고 가까운 곳에 미치게 함으로써 천박하고 고루한 시속의 견해를 변하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中略) 지금 子大夫들에게 친히 책문으로 묻는 것은, 한편으로는 자대부들이 속된 견해에 매이지 말라는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자대부들로 인하여 이 풀의 유래에 대하여 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다.<sup>16)</sup>

여기에서도 정조는 책문을 내는 이유가 군주로서 천박하고 고루한 시속의 견해를 변하게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며, 따라서 책문을 내는 이유는 “자대부들이 속된 견해에 매이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sup>17)</sup>

15) 正祖, 『弘齋全書』 卷50, 「策問」 3, 「文體」, “予爲是問, 每對筵臣, 未嘗不以變文體之說, 反復申戒, 不翅勸懇, 而聽我藐藐, 成效漠然. 如欲一洗啣啣之陋, 咸歸醇正之域, 蘊之爲經術, 著之爲文章, 庸成一代之體, 俾新八方之觀, 則其道何由. 子大夫, 其自是策, 擺近白挽古轍, 使予莫爲空言.”

16) 正祖, 『弘齋全書』 卷52, 「策問」 5, 「南靈草」, “在人君財成輔相之政, 又豈已於躬先率之, 推及遠邇, 於變其俚淺膠固之俗見也……而今於子大夫, 又親策以問之者, 一則欲使子大夫, 不囿於俗見也, 一則願因子大夫, 欲聞是草之所自也.”

이처럼 책문은 특징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본고에서 살펴볼 정조의 학문관이 드러나는 책문은 첫 번째 특징인 당시의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묻기 위해 제시된 것 보다는 두 번째 특징을 가진 조정에 참여하는 관료들의 공통된 인식을 지향하는 방향에서 제시된 책문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문관을 조정의 관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책문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本論에서는 이러한 정조의 생각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Ⅲ. 正祖의 學問觀

조선은 유교적 정치이념 아래 건국된 국가이다. 따라서 왕은 유교의 聖學思想에 그 治道의 근본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끊임없이 학문에 열중해야만 했다. 당연히 다음 대의 왕위를 계승할 왕세자 또한 마찬가지여서, 세자 때부터 書筵을 통해 교육하고, 왕이 된 이후에도 經筵을 통해 학문을 심화시키려 노력하였다. 왜냐하면 비록 신료의 입장이지만 유교교리에 정통한 학자들은 유교교리를 잘 안다는 사실로 왕을 옹호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君師로 이념화된 왕의 입장은 무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왕이 신료들보다 유교교리에 정통하다면 유교지식인들로 구성된 신료들은 왕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여러 정황들을 차치하고라도 정조는 스스로 학문하기를 즐기고 생활화하였던 타고난 학자였다. 이러한 그의 好學하는 자세는 1796년 新舊選 抄啓文臣의 親試에 제시한 다음의 책문을 보면 자세히 드러난다.

나는 어릴 적부터 다른 기호품은 없었으나 오직 책 읽는 것을 좋아하였으니, 연구하고 탐닉하느라 마음과 몸에 피로가 쌓인 지 수십 년에 책 속에서 생긴

17) 金顯玉, 앞의 논문, pp.23-24. 참조.

병이 마침내 가슴 속에 항시 막혀 있어서 흑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하였다. 그리고 즉위를 한 이래로는 책을 읽던 버릇이 일체 政務로까지 옮겨져서 그 증세가 더욱 심해졌으므로 복용한 빈랑나무 열매와 쥐눈이콩만도 근이나 포대로 계산하여야 할 정도였고, 백방으로 약을 구하여 보았지만 오직 이 남령초에서만 힘을 얻게 되었다.<sup>18)</sup>

여기서 그는 책 읽기를 너무 좋아한 탓에 마음과 몸에 피로가 쌓여 책 속에서 병을 얻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다. 군주로서 처리해야 할 업무는 산더미 같고, 정치적으로는 자신을 지지해주는 기반이 약하여 고립무원의 상태였으므로 자신의 뜻대로 일을 펼치기 또한 만만치 않았던 상황에서도 그는 책을 놓기는커녕 오히려 政務로 인해 마음대로 독서할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세자 때를 그리워하였다.<sup>19)</sup>

정조는 이처럼 타고난 학자임과 동시에 군주였다. 군주는 자신이 배운 학문을 이론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구현해 볼 수 있는 지위를 타고난 사람이다. 비록 공자와 맹자와 같은 성인도 군주의 자리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상을 실현해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에서 정조는 그의 뛰어난 학문을 실제 현실에 구현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이상을 현실로 실천할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해야 하는 문제점을 동시에 지닌 사람이었다. 따라서 그의 학문관은 어느 학자의 것과는 같을 수 없는 것이다.

## 1. 宋學에 근거한 漢學受容 樣相

정조는 즉위 초에 崇儒重道를 나라의 급무로서 표방하였다. 그가 역

18) 正祖, 『弘齋全書』卷52, 「策問」5, 「南靈草」, “予自少無他癖, 惟癖於看書, 研究耽蹟, 積勞心體, 數十年, 卷中之崇, 遂至於膈常滯而夜或徹, 及夫臨御以來, 看書之癖, 一移之機務之間, 爲崇滋多, 喫著積藪, 計以筋包, 求藥百方, 惟得力於是草.”

19) 正祖, 『弘齋全書』卷164, 『日得錄』, 「文學四」, “嘗閱古今書籍, 教曰, 予素喜看書, 在春邸, 雖東人文集, 已覽了數百家, 近則機務自多方策上功課, 無復如昔時也.”

대로 전승되어 온 이 대원칙을 다시 강조하여 제창한 취지는 朝野間에 팽배해지는 西學의 세력에 대한 대응책으로 ‘衛正闢邪’의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sup>20)</sup> 그는 邪學(西學)이 만연하게 된 근본원인이 正學의 쇠퇴에 있다고 보고 正學을 밝히는 길만이 최선의 揅弊之道라고 주장하였다.<sup>21)</sup> 이와 같이 邪學에 대응하여 말하는 正學은 곧 속학의 對應語이기도 하였다.<sup>22)</sup> 다음의 책문은 1791년 抄啓文臣의 親試 및 泮儒의 應製에 제시한 것이다.

내가 근일에 諸臣들에게 서양의 학설을 힘써 배척하라고 한 것은 진심을 다해 正學을 밝히는 것이 이단을 물리치는 근본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다시 일찍이 明末淸初의 책을 정확히 무성한 곳으로 여겼으니, 저 속학에서 넘어져 뒹굴면서도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자를 어찌 단지 학식이 미치지 못하여 견해가 매우 낮을 뿐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sup>23)</sup>

이 책문의 내용을 통해 정조가 말하는 邪學[俗學]이라는 것이 西學과 더불어 明末淸初의 학문[考證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같은 책문에서 “明末淸初로부터 諸家들의 嚙殺하고 간교한 문체가 출현하고부터 번잡한 문장과 여분의 글들이 찬란하게 꽃을 피워 해학과 극담을 꿀처럼 달게 여기고 宋儒를 진부하다고 지목하며 唐·宋의 八家를 고정된 형태를 따르는 것이라고 비웃은 지가 어느덧 100여 년이 되었다.”<sup>24)</sup>

20) 正祖, 『弘齋全書』 卷32, 「教」 3, 「崇儒重道教」, “崇儒重道四字, 卽我朝家法, 列聖相承, 化理休明, 而罔不以此爲先務. ……予雖否德, 亦知儒術之汗隆, 實關國家之盛衰. ……禁之於其末, 不若救之於其本, 則崇儒重道, 尤爲今日之所急也. ……以副予衛正闢邪之意也.”

21) 正祖, 『弘齋全書』 卷34, 「教」 5, 「斥邪學教」, “今也正學不明也, 故其爲弊害, 甚於邪說, 浮於猛獸, 爲今日揅弊之道, 莫過於益明正學.”

22) 鄭玉子, 앞의 논문, pp.11-12. 참조.

23) 正祖, 『弘齋全書』 卷50, 「策問」 3, 「俗學」, “予於近日, 諸臣之力斥西洋說也, 惓惓以明正學, 爲闢異端之本. 而又嘗以明末淸初之書, 爲正學之榛蕪, 彼俗學之匍匐, 不知恥者, 豈但曰識不逮, 而見太卑而已乎哉.”

24) 正祖, 『弘齋全書』 卷50, 「策問」 3, 「俗學」, “自有明末淸初諸家, 嚙殺詖淫之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正學은 宋學을 의미하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실지를 이행하고 시속은 小品을 싫어하여 금지하지 않아도 경전이 아닌 책과 법이 아닌 말이 모두 단절되고 순수하게 요·순·우·탕·문·무·주공·공자의 도를 공부하게 하겠느냐?”<sup>25)</sup>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말하는 正學이라 하는 것은 經學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經學(正學)을 밝히는 방법으로 그는 朱子書를 제시한다.

경술이 폐단을 받게 된 원인을 자대부들은 제대로 그 까닭을 알았느냐? 나는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것이 그 단서를 열었고 무엄함이 그 극한 지경을 초래하였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菽粟 같은 것을 싫어하게 되고 무엄하기 때문에 성현을 업신여기게 되는 것이니, 이것을 바꾸는 계기는 아마도 참된 경술에 종사하여 朱子를 잘 배우는 것에 있지 않겠느냐.<sup>26)</sup>

이 책문은 1795년 抄啓文臣의 親試에 제시한 것인데, 여기에서 정조는 경술의 폐단을 바꾸는 것은 참된 경술에 종사하여 주자를 잘 배우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또한 1791년 七夕製 및 抄啓文臣의 親試에 제시한 책문에서는 “더구나 주자의 황금을 나누듯 저울질하여 내는 오묘한 해석은 정밀한 뜻으로 경도를 삼고 或問으로 위도를 삼아 眞金에 철을 벗기고 良玉을 돌 속에서 척출하여 『集註』를 편성하니, 이른바 한 글자의 첨가도 안 되며 한 글자의 감소도 안 된다는 것이 과장하고 자랑하는 말이 아니다.”<sup>27)</sup>라고 하여 朱子書의 기능을 존중하고 있다.

體出, 而繁文剩, 燦然苔華, 詼諧劇談, 甘於飴蜜, 目宋儒爲陳腐, 嗤八家爲依樣者, 且百餘年矣.”

- 25) 正祖, 『弘齋全書』 卷50, 「策問」 3, 「俗學」, “何以則人踏實地, 俗厭小品, 無事於禁, 而并絕不經非法之書與言, 純然用工於堯舜禹湯文武周公孔子之道歟.”
- 26) 正祖, 『弘齋全書』 卷51, 「策問」 4, 「經術」, “經術所以受弊之源, 子大夫尙能悉其由乎. 予則曰好新以開其端, 無嚴以致其極. 好新故厭菽粟, 無嚴故侮聖賢, 此其轉移之機, 顧不在於從事眞經術而善學朱夫子乎.”
- 27) 正祖, 『弘齋全書』 卷50, 「策問」 3, 「論語」, “況以朱夫子分金秤出之妙解, 經

그러나 다음의 글을 살펴보면,

글을 배우는 사람은 마땅히 六經을 종주로 하고 諸子書와 史書를 날개로 하여 상하를 포괄하고 今古를 널리 다하며, 마침내는 朱子書를 극진히 한 후에야 그 언사가 순정하고 道術에 差誤가 없게 될 것이다.<sup>28)</sup>

라고 하여, 朱子書를 극진히 한 후에 그 언사가 순정하고 道術에 差誤가 없다고 말하였지만, 글을 배우는 사람은 마땅히 六經을 종주로 삼으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1795년 抄啓文臣의 親試에 제시한 책문에서는 “어떻게 하여야 성인의 말이 아닌 것과 떳떳하지 않은 글을 울 밖으로 버려 더러운 것을 보듯이 하여, 한 시대의 풍습과 숭상하는 것을 九經의 올바른 맥락과 진정한 전통 사이에서 부지런히 힘쓰게 하고, 나아가서 집집마다 스승의 자리를 마련하고 사람마다 강론하여서 한 번 변하여 도에 이르게 하는 효과를 얻게 할 수 있겠느냐?”<sup>29)</sup>라고 하여 성인의 말씀, 즉 經典이 아닌 것은 모두 울 밖으로 버리고 九經의 올바른 맥락과 진정한 전통 사이에서 부지런히 힘쓰게 하는 방법에 대해 묻고 있다. 또한 1791년 到記儒生の 秋試 및 抄啓文臣의 親試와 文臣의 製述에서 제시한 다음의 책문에서 정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늘상 이르기를, “경전을 존중하려면 먼저 주자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주자를 존중하는 요령은 또한 의심이 없는데 의심을 가지고, 의심이 있는데 의심하지 않는 데에 달려 있으니, 비단 張宣公 張栻이 胡文定 胡安國에게 유착하듯이 한 연후에 참으로 주자를 존중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왔다.<sup>30)</sup>

之以精義，緯之以或問，眞金去鐵，良玉出璞，而集註之篇成，則所謂加一字不得，減一字不得者，非夸耀矜大之言。”

- 28) 正祖, 『弘齋全書』 卷163, 『日得錄』, 「文學三」, “學文者當宗主六經, 羽翼子史, 包括上下博極今古, 而卒之會極於朱子書然後, 其辭醇正, 而道術庶幾不差誤.”
- 29) 正祖, 『弘齋全書』 卷51, 「策問」 4, 「經術」, “何以則非聖之言, 不經之字, 棄之箝籥, 視同垢穢, 而使一世之風聲習尚, 俛焉孳孳於九經之正脈眞傳, 以之家設重席, 人操塵尾, 而食一變至道之效歟.”

여기에서 정조는 경전을 존중하려면 주자를 존중해야 하고, 주자를 존중하는 것은 의심하는 데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정조는 주자학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그 오류를 지적하고 비판적으로 계승하는 것이 오히려 주자학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므로 초계문신을 대상으로 한 『詩經講義』에서 毛奇齡을 비롯한 청대 학자들이 주자학을 비판하는 성과를 재검토하게 하였고, 주석을 제거한 白文本이나 經文과 함께 특정 학자의 주석만 수록한 定本을 편찬하기도 하였으며, 모든 주석을 제거하고 경서의 원문만 수록한 『三經四書正文』을 편찬하기도 하였다.<sup>31)</sup>

그러므로 정조가 말하는 正學은 經學이며 朱子學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조는 학자군주답게 당대의 신학문인 西學과 考證學에 대하여도 관심을 갖고 그 나름의 비평을 하였다.

利瑪竇(Matteo Ricci)가 이른바 야소교를 부르짖어 斯道를 쪼먹는 해충이 되었으나, 우리나라만은 예외의 나라로서 사대부들이 공자와 맹자를 높이고 신봉하여 이단에 현혹되지 않았다. 근래에 와서 일종의 邪學이 그 실에 부회하여 가르침을 손상시키고 인륜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해치고 있는데, 그 화가 지극히 참혹하다. 그중에서도 그들의 이른바 제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설은 더욱이 차마 말할 수 없는 것이다.<sup>32)</sup>

요즈음 서양의 邪學이 점차 熾烈하고 그를 공격하고 배척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 또한 근본을 다스리는 도를 알지 못하고 있다.<sup>33)</sup>

30) 正祖, 『弘齋全書』 卷50, 「策問」 3, 「大學」, “常謂欲尊經者, 當先知尊朱, 而尊朱之要, 又在於無疑而有疑, 有疑而無疑, 不但如張宣公之留著胡文定, 然後儻庶幾乎真箇尊朱.”

31) 김문식, 앞의 논문, pp.207-208. 참조.

32) 正祖, 『弘齋全書』 卷165, 『日得錄』, 「文學五」, “利瑪竇倡所謂耶穌之教, 爲吾道之蠹賊, 而獨我國以禮義之邦, 士大夫尊信孔孟而不爲異端所惑. 近有一種邪學, 傳會其說, 傷教而敗倫, 殘民而害生, 其禍至憊也. 而其所謂廢祭之說, 尤有不忍言者.”

여기에서 정조는 서학의 폐단을 논함에 “인륜을 무너뜨리고 백성을 해치고 있다.”고 보았으며, 특히 제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말에 있어서는 차마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하였으며, 공격하고 배척하는 사람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邪學이 점차 치열하고 있는 것은 그 근본을 다스리는 도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西學의 종교적 측면을 비판하고 있다.<sup>34)</sup>

또한 考證學에 대해서는 1795년 抄啓文臣의 親試에 제시한 책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에 이른바 경술이라는 것은 어찌서 이것과 크게 서로 거리가 먼 것이나. 物名에 주력하거나 器物에 지나치게 치밀하여 考證에 얽매이거나 변론에 집착하여, 대의가 귀결되는 곳을 제대로 탐구하여 각자의 마음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폐단이 마치 女史가 뜻도 모르면서 시를 암송하는 것과 같아서 ‘天人性命’이라면 진부하다고 지목하고 ‘敬義存養’이라면 오활하다고 비웃는다.<sup>35)</sup>

정조는 여기에서 당시의 경술, 즉 고증학이 物名에 주력하고 器物에 치밀하여 그 뜻도 모르면서 考證에만 얽매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오늘날 문체가 날로 비하하여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은 고증학이 그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sup>36)</sup>라고 까지 말하여 고증학에 대해 맹렬히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漢學의 성과를 상당히 수용하는 입장

33) 正祖, 『弘齋全書』 卷164, 『日得錄』, 「文學四」, “近來, 以西洋邪學之漸熾, 多有攻斥之人, 而此亦不識治本之道也.”

34) 김인규, 앞의 논문, p.302. 참조.

35) 正祖, 『弘齋全書』 卷51, 「策問」 4, 「經術」, “爾今之所謂經術者, 何與此大相遠也. 驚於物名, 詳於器械, 泥於考證, 膠於辯博, 而曾莫能究其大義之所歸, 以獲作者之心. 故其弊也如女史之誦詩, 天人性命, 則目之以陳腐, 敬義存養, 則笑之爲迂滯.”

36) 正祖, 『弘齋全書』 卷163, 『日得錄』, 「文學三」, “目今文體之日卑, 至於莫可收拾者, 卽考訂之學, 有以啓之.”

이었다. 그는 한학이 焚書坑儒 후 사방으로 흩어진 경전을 수집하고 누락된 부분을 보충한 공적이 있는데다 原經典의 시대와 가깝고 자료 섭렵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경학 연구에 많은 장점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1787년 抄啓文臣의 課試比較에 제시한 다음의 책문에서 볼 수 있다.

六經 중에 가장 해지고 결손된 것으로는 『尙書』보다 심한 것이 없으며 의심스러운 부분과 믿을 만한 부분이 반반이어서 지금까지도 미결인 것도 역시 『상서』만 한 것이 없다. 대체로 孔壁에서 나온 것을 古文이라고 칭하고 伏生の 입으로 전한 것을 今文이라고 칭하는데, 고문은 한 나라 때는 유행하지 않았으나 오직 司馬遷이 스승에게 전수받았으니 그 전통이 확실하며, 금문은 한 나라 때 성행하였는데 鼂錯가 자기의 뜻대로 부회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이것은 고문을 숭상하고 금문을 배척하는 논설이다. 고문은 문체가 평이하고 雅馴한 데 비하여 금문의 문체는 佶屈하고 犖牙하다. 그런데 길굴하고 오아한 것은 고문인 것 같고 평이하고 아순한 것은 금문인 것 같으니, 그러므로 吳澄은 또 천고의 古書가 가장 늦게 나왔는데 어찌 자획과 문세가 조금도 齟齬되는 것이 없느냐고 의심하였다. 이것은 금문을 숭상하고 고문을 내치는 논설이다.<sup>37)</sup>

여기에서 정조는 『尙書』의 진위를 분별하는 문제를 언급하면서 『尙書』의 고증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는 분명 宋學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고증에도 일가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그는 청에서 출판되는 서적에 관심을 가지고 구입을 희망하는 도서목록인 『內閣訪書錄』을 작성하고 『古今圖書集成』 1만 권을 구입하였으며, 顧炎武·李光地와 같이 주자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경학과 경

37) 正祖, 『弘齋全書』 卷50, 「策問」 3, 「尙書」, “六經之中, 最刳缺者, 莫如尙書, 其疑信相半, 至于今未決者, 又莫如尙書. 蓋以孔壁所出稱古文, 伏生口傳, 稱今文, 而古文不行於漢時, 惟司馬遷乃得師授, 其傳端的, 今文盛行於漢時, 而鼂錯自以己意, 傳會屬成, 此尙古文而結今文之論也. 古文, 文體平易雅馴, 今文, 文體佶屈犖牙. 佶屈犖牙者, 似乎古, 平易雅馴者, 似乎今, 故吳澄又疑千年古書, 最晚迺出, 豈有字畫文勢, 略無齟齬者乎. 此尙今文而結古文之論也.”

세학을 밀접하게 연관시킨 학자들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평가했다.<sup>38)</sup> 이처럼 정조는 宋明理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면서도 漢學의 성과 또한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입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 2. 經學의 內實化에 보이는 實學 追究의 精神

정조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자학을 근간으로 경학에 힘쓸 것을 강조하였는데, 주자학은 내면의 도덕적 완성을 통한 道學의 이상주의를 기저로 하고 있는 반면, 당시 그의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心性論에 매달려 空理空談을 일삼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따라서 그의 학문적 성향은 실용성을 띠고 있다.

學問의 道는 다른 것이 없다. 日用 사물 위에 있는 것이니 그 지당한 곳을 講究하여 만들어 장차 나아갈 뿐이다. 후세의 儒者들이 혹 心性을 말하는 데는 능함이 있으면서도 실지 事功에 이르러서는 어두워 무슨 물건인지 알지 못한다면, 이는 體만 있고, 用이 없는 학문일 뿐이다.<sup>39)</sup>

여기에서 정조는 실질적인 쓰임이 되지 않는 학문은 쓸모가 없음을 말하고 있다. 그는 또한 “經義에 있어서는 活法이 귀한 법이고, 학문은 장차 쓰기 위한 것이다.”<sup>40)</sup>라고 하여 학문이라는 것은 반드시 일상의 생활에 긴요하고 실질적인 일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1792년 上齋儒生의 再試에 제시한 책문이다.

38) 김문식, 앞의 논문, p.206. 참조.

39) 正祖, 『弘齋全書』 卷164, 『日得錄』, 「文學四」, “學問之道無他, 在於日用事物上, 講求其至當處, 做將去而已. 後世儒者, 有或能言於說心說性, 而至於實地事功, 味然不知爲何物, 這便是有體無用之學.”

40) 正祖, 『弘齋全書』 卷163, 『日得錄』, 「文學三」, “經義貴活法, 學問將致用.”

『新書』의 실용적 가치에 대해 묻는다면, 이치가 있느냐, 사실이 있느냐. 실용의 가치가 없다면 허위일 뿐이다. 아, 책이 거짓이라면 말도 거짓이며 말이 거짓이라면 행동도 거짓일 것이니 그 유행하는 폐해는 온 천하를 함께 거짓으로 끌고 들어갈 것이다. 내가 이것을 두려워하여 평소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바로잡아 훈계하는 것이 모두 실재를 위주로 하라는 것으로 하나의 기준을 삼고 있는 것이다.<sup>41)</sup>

여기에서 정조는 前漢의 문인 賈誼가 한나라의 폐단을 지적하여 펴낸 정치이론서인 『新書』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도 실용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책이 허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정조는 무조건적인 실용성, 즉 실학만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진실로 돌이켜 실용할 수 있는 학문을 찾아서 육경을 寢廟로 삼고 『좌전』·『사기』를 堂奧로 삼고 팔대가를 門牆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건너야 할 나루는 호호탕탕하여 안개 낀 바다와 같고 헤쳐 나가야 할 길은 어지럽기가 실타래 같으니, 斗筭의 작은 역량으로 어쩔 수 없이 대양을 바라보고 머리를 돌리지 않을 수 없다.<sup>42)</sup>

이는 1791년 抄啓文臣의 親試 및 泮儒의 應製에 제시한 책문으로, 여기에서 정조는 ‘육경을 寢廟로 삼고 『좌전』·『사기』를 堂奧로 삼고 팔대가를 門牆으로 삼되, 실용할 수 있는 학문을 찾는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문을 찾고자 하지만 경학을 근간으로 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또한 다음의 글에서는,

41) 正祖, 『弘齋全書』卷51, 「策問」4, 「偽書」, “試問新書之實用, 理耶事耶, 無實則僞而已. 噫, 書僞則言僞, 言僞則行僞, 而其流之害, 率天下同歸於僞. 予是之懼, 平日所以誨人教人導迪訓匡, 咸以腳踏實地, 爲一副柄衡.”

42) 正祖, 『弘齋全書』卷50, 「策問」3, 「俗學」, “誠欲使反而求諸, 就實之學, 寢廟於六經, 堂奧於左史, 門牆於八家, 則津涉浩如烟海, 披剝紛如縷絲, 斗筭之力量, 不得不望洋回首.”

近世의 선비가 五經도 모두 헤아리지 못하는 데 하물며 十三經을 어찌 알겠는가? 학문이 거칠고 무더짐이 이와 같으면서도 心을 말하고 性을 말하여 經을 다한 선비로 자처하고 있으니 俗學의 폐단이 참으로 오래되었구나.<sup>43)</sup>

라고 말하여 心性論에만 매달려 經學에 어두운 당시의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금 사람들은 經學이라고 하면 그저 性理에 관한 說이 경학인 줄만 알지 어떠한 사물도 경학을 배제한 상태에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모른다. 시험 삼아 근래 華城의 築城을 가지고 말해 보면, 일에 임하여 조처할 방도를 모르는 사람은 모두 경학에 어두워서 식견이 밝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만약 경전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터득한 바가 있다면 城이나 수레의 제도도 여기에서부터 미루어 갈 수 있을 것이다.<sup>44)</sup>

정조는 여기에서 경학을 배제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사물에 대한 식견도 체득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심지어 城의 제도나 수레의 제도 같은 것도 經學에 밝으면 미루어 다 터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이 性理의 說만을 경학으로 알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조는 “이른바 경학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날마다 쓰는 음식과 같아서 사람마다 갖고 있고 사람마다 행하는 것이다.”<sup>45)</sup>라고 하여 실질적인 학문 자체가 경학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따라서 1789년 抄啓文臣의 親試에 제시한 다음의 책문에서는 지리학

43) 正祖, 『弘齋全書』 卷161, 『日得錄』, 「文學一」, “若近世之士, 五經尙不能悉數, 况十三經乎. 鹵莽如此, 而說心說性, 自處以窮經之士, 噫, 俗學之弊久矣.”

44) 正祖, 『弘齋全書』 卷163, 『日得錄』, 「文學三」, “今人言經學, 但知談性說理之爲經學, 而不知事事物物, 無非舍經學不得. 試以近日華城築城言之, 凡臨事而不知措處之方者, 皆昧於經學而見識不明故耳. 苟能於經訓上, 有所心得, 城制車制, 亦可從這箇上推去.”

45) 正祖, 『弘齋全書』 卷163, 『日得錄』, 「文學三」, “所謂經學也, 非別件物事. 如日用飲食, 人人有之, 人人行之.”

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다.

어찌서 근래에 들어 사람들은 지리가 정치의 근본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여, 관문의 방비는 허술하다는 탄식이 많고, 성곽과 성지는 수선하는 효과가 없으며, 서울을 보호하는 주목의 병권은 묘당의 의논이 진퇴가 무상하고 강화도의 統禦 제도는 중론의 가부가 한결같지 않느냐?<sup>46)</sup>

또한 같은 해에 閣臣과 승지의 應製에 제시한 책문에서는 천문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늘이 하늘답게 된 근본은 어떤 것이냐? 창창한 허공일 뿐이다. 그러나 해와 달이 정확하게 밝고 별들이 그 빛을 발하며 은하수가 높다랗게 빛나 그 작용이 쉽이 없어서 백성의 일용을 이끌어 주니, 중요하지 않느냐. 국가를 다스림에 있어서 천문에 대한 일보다 먼저 할 것이 무엇이겠느냐.<sup>47)</sup>

정조는 실질적인 모든 학문이 경학이라고 말하며 그 바탕 위에서 성곽을 짓고 수레를 만드는 일까지 모두 이루어진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면서 당시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던 지리와 천문의 중요성까지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그는 경학에 힘쓸 것을 강조하는 가운데 실학을 추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 IV. 結語

정조는 타고난 학자임과 동시에 군주였다. 군주는 자신의 학문을 현

46) 正祖, 『弘齋全書』 卷50, 「策問」 3, 「墜勢」, “奈之何挽近以來, 人不知地理之爲政本, 關防多疎虞之歎, 城池無修飾之效, 畿輔兵圍, 廟議之進退靡常, 江都統禦, 衆論之臧否不一.”

47) 正祖, 『弘齋全書』 卷50, 「策問」 3, 「天文」, “天之所以爲天, 本何爲哉. 蒼蒼焉耳矣. 然日月貞其明, 星辰耀其光, 雲漢倬其章, 以之著不息, 而前民用, 不亦重乎. 天文之於爲國也, 務孰先之.”

실에 구현해 볼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며 동시에 학문적 이상과 현실에서 오는 괴리를 극복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의 학문관은 여느 학자의 것과는 같을 수 없는 것이다. 만약 학문적 이상이 자신이 서 있는 위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면 단순히 학자적 자존심으로 이상을 좇을 수만은 없는 治者인 것이다. 따라서 그는 漢學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도 조선의 國學인 주자학을 바탕으로 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실용적 학문을 지향하면서도 복고적 성향을 띠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正祖의 學問觀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宋學에 근거한 漢學受容 樣相이다. 정조는 당시의 학문을 ‘衛正闢邪’라는 관점에서 正學과 邪學(俗學)으로 나누어 보호하고 배척하였다. 그가 말하는 정학은 朱子學을 근간으로 하는 經學을 말하는 것이고, 속학은 西學과 明末淸初의 고증학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조는 학자군주답게 西學과 考證學에 대하여도 관심을 갖고 그 나름의 비평을 가하였으며, 漢學의 성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용하는 입장이었다.

둘째는 經學의 內實化에 보이는 實學 追究의 精神이다. 정조는 당시의 학문 풍토가 心性論에만 매달려 經學에 어둡다고 비판하면서, 경학을 근거로 한 실질적 학문을 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경학을 배제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사물에 대한 식견도 체득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경전의 가르침을 터득하면 城이나 수레의 제도까지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당시 관심 밖의 학문이었던 지리와 천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처럼 정조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학문은 학문이 아니라고 여길 만큼 실용성을 강조하였다.

이상에서 正祖의 學問觀을 그의 策問을 통해 살펴보았다. 책문 속에는 이처럼 정조가 지향하고 조정에 참여하는 관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던 그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策問은 그의 학문적 성향을 살펴볼 수 있는 훌륭한 근거자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參考 文獻>

- 正祖, 『弘齋全書』,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http://www.itkc.or.kr>)
- 김문식, 「조선후기 경학관의 변화」, 『朝鮮時代史學報』 29집, 조선시대사학회, 2004.
- 김인규, 「弘齋 正祖의 學問觀」, 『溫知論叢』 23, 溫知學會, 2009.
- 金顯玉, 「正祖의 經世思想 研究-〈策問〉을 중심으로」, 공주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孫貞先, 「〈日得錄〉을 중심으로 본 正祖의 經學思想 一考察」, 경성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심경호, 「정조의 경학 연구 방법에 대한 규건」, 『泰東古典研究』 第21輯,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5.
- 유협(최신호 역), 『문심조룡』, 현암사, 1975.
- 鄭炳憲, 「羅世纘의 策文과 論述의 傳統」, 『語文論集』 第6輯,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1996.
- 鄭玉子, 「正祖의 學藝思想」, 『韓國學報』 4권 2호, 일지사, 1978.
- 한형조, 「正祖의 學問觀 : 朱子學의 批判的 復古」, 『장서각』 3, 한국학중앙연구원, 2000.

## Abstract

*King Jeongjo's View of Learning Observed in Chaekmun / Kim Hyun Ok\**

If we should count the most academic kings throughout the Chosun Dynasty, we will choose King Sejong and King Jeongjo with few exceptions. King Jeongjo, who won such fame as a learning ruler, regarded himself as a scholar and was so confident academically that he educated young officials through the Chogyemunsin(抄啓文臣) System.

Accordingly, research on King Jeongjo's view of learning(學問觀) has been made from various aspects. In this study, however, we attempted to examine his view of learning through Chaekmun (examination questions) as a pattern of learning.

His view of learning can be divided largely into two.

One is his reception of Chinese studies(宋學) based on the studies of the Sung Dynasty(漢學). From the viewpoint of Wijongbyeoksa(衛正關邪), King Jeongjo divided learning in those days into orthodox learning and vicious learning (vulgar learning) and protected or rejected them. In his view, the orthodox learning is Chinese classics(經學) based on Neo-Confucian studies(朱子學), and secular learning means Western studies and evidential studies in the late Ming Dynasty and the early Qing Dynasty. As a scholastic king, however, King Jeongjo was interested also in Western studies(西學) and evidential studies(考證學) and criticized them in his own way, and admitted the achievements of Chinese studies to a considerable extent.

The other is his spirit of pursuing practical sciences(實學) as shown in the substantiation of Chinese classics(經學). King Jeongjo criticized that the

---

\* Taejeon Kwanjeo High School, Teacher / hokongju77@hanmail.net

academic climate in those days clung to the theories of human nature and was ignorant of Chinese classics, and maintained substantial learning based on Chinese classics. He asserted that one cannot acquire knowledge of anything without studying Chinese classics, and contended that if one masters Chinese classics he may understand even the mechanisms of carriages and walls. Furthermore, h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geography and astronomy, which were not interests of learners in those days. In this way, he valued practicality until believing that inapplicable science is not a science.

As presented above, this study examined King Jeongjo's view of learning through his Chaekmun. We found that Chaekmun carries the ideas that he pursued and tried to share with government officials, and accordingly, it is considered a valuable material for understanding his academic tendencies.

**【Key words】** King Jeongjo(正祖), Chaekmun(examination questions, 策問), Neo-Confucian studies(朱子學), Chinese classics(經學), practical science(實學)

투고일 : 10월 31일, 심사일 : 11월 29일, 게재확정일 : 12월 7일